

### 일타 대종사 사리탑 '우뚝'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일타 대종사의 부도를 제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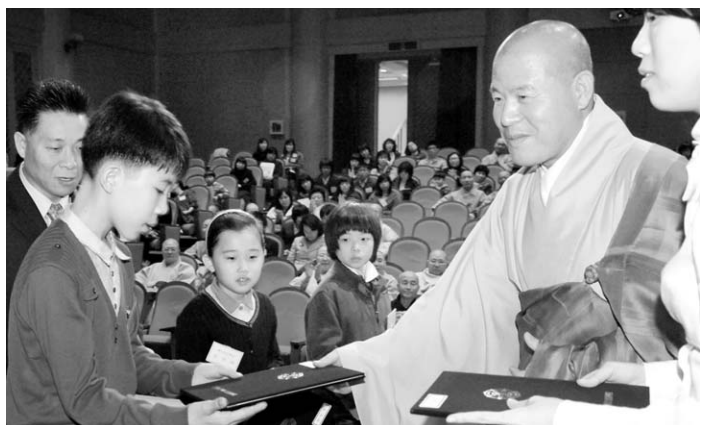
동곡당 일타 대종사(1929~1999)의 사리탑과 비가 해인사 비림(碑林)에 조성됐다.

해인사 지족암 동곡문도회(문도대표 해인·항직)는 11월 19일 오전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해인사 비림에서 동곡당 일타 대종사의 사리탑과 비 제막식을 갖고 대적광전에서 9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다.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은 동곡당 일타 스님의 사리탑과 비 제막을 축

하하며 “본래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더니만 오늘은 사리탑으로 모습을 나누니 대천의 세계가 모두 무너지고 없어질지라도 백천삼매를 갖출 수 있겠다. 또 글씨는 서예가 유형재 선생이 각자는 나직한 선생이 맡았으며, 탑과 비의 설계와 조각은 이영섭 작가의 솜씨다. 임연태 기자

### 은정불교문화진흥원, 117명에 장학금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사진)은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은정학술상'을 수상한 실상사 화엄학림 스님 6명과 불교학자 2명, 불교계 단체장자 4명, 대학원생 20명 등 불교인재와 독거노인 및 장애인 117명에게 1억735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박재원기자

### 社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종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편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해탈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옹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 (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군포교 괄목성장...새 도약 필요

### 군승 40주년 맞아 '군불교 40년사' 봉정 등 행사

'포교의 황금어장'이라 불리지만 열악한 포교환경으로 아무나 나서기 힘든 곳. 한국 불교의 중흥과 호국불교의 명맥을 잇기 위해 스님들이 군포교에 나선지 40주년을 맞았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11월 25일, 군종교구 호국원광사(주지 합현준 법사)에서 군승 통일가사 봉정식을 시작으로 군승 파견 40주년 기념 '군승의 날' 행사를 성대히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군포교사를 정리한 <군불교 40년사> 봉정과 순직 군승 합동 천도제, 전 군법사가 참여한 군승회의 등이 열린다. 군승회의에서는 올해 군승사업 결산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군승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기념법회는 오후 6시 W컨벤션센터(구 하림극장)에서 봉행된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보선 스님(중앙총회회장), 김의정 회장(중앙신도회장), 정인회 회장(군불교후원회)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할 행사는 총무원장 스님 법어와 40년간 거쳐 온 군승들의

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물 상영, 통일가사와 <군불교 40년사> 봉정식, 공로자 표창수여식 후 만찬을 연다.

국군에서 군법사가 등장한 것은 1960년대.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불교는 개신교, 카톨릭과 함께 국군조직법에 따라 정식으로 종교 활동을 펼쳤으나 한국전쟁 이후 한동안 공백기를 맞았다.

1950~60년대 청담 스님, 능가 스님 등 당시 조계종 중진스님들은 군포교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군포교 활동에 힘쓰고 있었다. 1964년 3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이 국방부에 '군종법사 제도 설치 청원서'를 제출하면서부터 군법사의 태동은 시작했다.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1965년 2월 11일 조계종은 국방부와 국회, 청와대까지 '군법사제도 설치 청원서'를 재차 제출했다. 3월 17일 국회 국방분과위원회가 1년간 군법사 제도 연구기간을 정하는 등 4개항을 결의하면서 8월 30일 각 군 본부 등의 불교활동 지원을 위해 군포교사 10명이 위촉됐다. 동국대에 군승후보 교육원이

개설되면서 군법사 양성이 가시화되자, 개신교는 거센 반대에 나섰다. 1967년 군법사 탄생을 위해 사부대중이 모두 나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시위를 벌이는 등 종단과 신도들의 끈질긴 요구로 군법사 파견을 위한 행정조치가 하나 둘 시작됐다.

1968년 5월 특임된 불자였던 최영희 장군이 장관에 임명돼 군승 파견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1968년 11월 30일 훈련을 마친 제1기 군승후보생 5인(김봉식·권기중·권오현·장만수·이지행)이 군승 1기로 임관하면서 본격적인 군승의 역사가 시작됐다.

군승 파견 40주년을 맞은 지금, 최초 5명이던 군승의 수가 140여 명으로 늘어났다. 한곳도 없던 군법당도 200여 도량을 갖췄다.

2007년 12월 현재 군법사는 11만4085명이다. 개신교 신자 21만 5280명의 절반수준이다. 군포교 주역인 군종 법사는 139명(육군 97명, 해군 19명, 공군 23명/사미계 수지자 80명, 구족계 수지자 59명)으로 군승 파견 최초 5명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한 곳도 없던 군법당도 200여 도량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민간성직자 600여 명과 불광사, 조계사, 봉은사 등 대형사찰 신도회와 조계종 포교사단 등이 군포교를 돕고 있다.

미래불교를 위해 군포교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조계종은 2005년 7월 25일 군종특별교구를 출범시켰다. 군종특별교구는 2008년 5월 20일 종단 최초로 결계 및 포살법회를 봉행한 것은 물론 체계적인 군불교 지원과 군법사 자급성 고취, 군종법사 위상 및 복지향상에 앞장서왔다.

교구장 일면 스님은 "군종교구는 출범 이래 '한국불교의 미래 군불교'를 표어로 △제도정비 통한 교구 체제구축 △종단 정체성 확립 △군포교 역량강화 모색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 시스템화된 군포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군종교구는 국방부의 2013년 육군 훈련소 통합 계획에 맞춰 육군훈련소 내에 5000명을 수용할 법당 불사를 비롯해 군구조개편에 따른 전략적 포교정책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서울시립영등포복지관

#### 11월 26일 개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지계)은 11월 26일 오후 2시에 대강당 부부나눔에서 개관식을 갖는다.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태·전여옥·권영세·주호영·박지원·나경원·강석호·강승규 국회의원, 방송인 엄앵란·현철, 지역장애인인과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계 스님은 "관내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인 만큼 장애인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게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및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년 11월 착공해 2007년 11월에 완공된 장애인복지관은 별관을 포함해 지하 1층, 지상 4층, 건평 2,200㎡ 규모로 건립했으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이상연 기자

### 서울노인복지센터

#### 서울노인영화제 개막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가 11월 18~19일 서울아트시네마와 허리우드극장에서 제1회 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했다.

18일 개막식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일문 스님과 영화감독 배창호, 김중용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하고 어르신 500여 명이 객석을 채운 가운데 개막작 '브라보 나의 인생'이 시작을 알렸다. 전국노인영상공모전에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노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들로 19일까지 총 21개 작품과 아티신이 선정한 추억의 한국영화가 상영됐다.

일문 스님은 "어르신의 시각으로 개인·가족·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 영화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래사냥' '흑수선' 감독으로 유명한 배창호 영화감독은 "영화는 삶·인간·인생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며 "삶의 깊이를 통찰하신 어르신들이 직접 기획, 제작으로 완성된 서울노인영화제는 어떤 영화제보다 의미가 깊다"며 기대를 표했다.

이상연 기자

## 김의정 조계종 신도회장 WFB부회장 당선

### 58년 WFB 역사상 여성 최초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金宜正) 회장이 제24차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이하 WFB) 총회에서 본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WFB(본부회장 팬 와나메티)는 1950년 태국에서 창립돼 전 세계 146개국 불교단체가 가입·활동하고 있는 범불교적 연합체로 제24차 총회는 11월 14~1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됐다.

동경총회에는 조계종 진월 스님, 재경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장 정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손안식 상임부회장 등 16명의 한국

대표를 비롯해 세계 62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중앙신도회 최초 여성신도회장이기도 한 김 회장의 당선은 58년 WFB 역사상 여성으로서의 최초이다. 이번 당선은 불교국가 중 가장 체계적인 비구니 교단이 자리하고 있는 한국만의 특색이 발현된 것으로, 한국 여성불자의 위치와 힘을 보여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본부 부회장은 4년 임기동안 WFB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과의 불교문화 교류와 협력을 위한 활동으로, 불교국가의 국익과 문화진흥에 기여하게 된다.



WFB 팬 와나메티 본부회장으로부터 본부 부회장 임명장을 받는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왼쪽)

한편 WFB 제24차 총회에서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진각종 지역본부 가입인준 승인과 함께 양종운 본부

부회장 연임, 진월 스님 등 총 11명의 각각 상임이사가 선출돼 기쁨을 더했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무료 입장**

**BUDDHISM CULTURE EXPO PALKWANHOE 2008**  
2008 불교문화엑스포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11. 28 (금)\_ 각 사찰에서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수계발원 입재

# 팔관회

한국 불교의 중심지인 불도(佛都) 부산에서 2008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를 개최합니다.

불교 법회의 전통과 각종 불교문화, 산업을 함께 어우르는 종합전시를 결합하여 법회와 문화, 전시와 축제의 새로운 팔관회의 모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가 그 예전 화려하고 장엄했던 고려 『팔관회』로 재현되기를 소망하면서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에 사부대중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2008. 12. 4(목) ~ 12. 7(일)**  
**해운대 BEXCO 특별전시장**

문의 : (051)867-0501~3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조직위원장 정 여  
수석부위원장 영 제 합장  
상임부위원장 정 각

※ 매일 유명다도회에서 다례시연을 하며 각종 공연과 체험부스도 운영합니다. 참가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서화 작품 등 다양한 경품도 마련됩니다.

www.bba.or.kr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 2008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조직위원회 특별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후원 : KBS 부산방송총국, MBC부산문화방송, KNN, BBS부산불교방송, BTN불교텔레비전, 국제신문, 부산일보 외 교계 각 언론사